



현대차그룹, 여의샾강생태공원 재정비 나선다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와 손 잡고 여의도 한강변의 여의샾강 생태공원 재정비를 통한 친환경 사회공헌에 나선다. 현대차 그룹은 23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여의샾강생태공원 친환경적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신용복 본부장,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조은미 대표. /현대차그룹



GS리테일, 해병대에 의류건조기 50대 기증

GS리테일은 6·25 발발 71주년을 앞두고 이달 23~24일 양일간 백령도·연평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하여 군장병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8500만원 상당의 의류건조기 50대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 오진석부사장(오른쪽)과 연평부대장이 해병대 장병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S리테일



OK금융, 안창림 유도선수 올림픽 메달 땀 포상금

OK금융그룹은 재일교포 3세 출신 유도선수인 안창림에게 도쿄올림픽 메달 획득 시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 획득 시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은메달과 동메달의 포상금은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이다. 지난 1월 후원 계약 연장 후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오른쪽)과 안창림 선수가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OK금융그룹



홈플러스-아름다운가게 아동의류 착한소비 특별전

홈플러스는 서울 화곡동 아름다운가게 강서화곡점에서 자사의 사회공헌재단인 '홈플러스 e파란재단'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착한소비 챌린지 아동의류 특별전'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아름다운가게를 찾은 시민들은 신상품과 유사한 품질의 샘플의류를 알뜰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이 수익금은 소외이웃들을 위해 쓰여지는 '착한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됐다. /홈플러스



롯데칠성, 남산에 클라우드 어반 그린 야드 조성

롯데칠성음료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남산 N서울타워 일대에 '클라우드 어반 그린야드(Kloud urban green yard)'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클라우드 어반 그린야드'는 클라우드 레터링 테이블, 벤치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테라스 데크광장, 전망대, 메인바 등 N서울타워 일대 공간을 꾸몄다. /롯데칠성



“데일리로 마실 수 있는 피노누아는 정말 없는거야?”

최근 저녁자리에서 누군가가 푸념했다. 레드와인으로 보면 카버네 소비뇽과 메를로 같은 품종은 그가 격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와인이 종종 있다. 반면 피노누아는 그런 보물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세상 천지에는 낚고 찾아보면 정 없겠나만은 대부분의 경우 괜찮은 와인을 만났다 싶으면 생각보다 가격이 높고, 가격이 적당하다 싶으면 피노누아 특유의 매력에 죽은 와인이다. 품질이 조금만 더 좋아져도 가격은 배로 뛴다. 그래서 와인애호가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다. 비싸고 맛있는 피노누아는 있지만 싸고 맛있는 피노누아는 없다고.

이유는 사람으로 치면 예민한 품종이어서다.

싸고 맛있는 피노누아는 없다?



(왼쪽부터)레인 소노마 코스트 피노누아, 부샤 빼레 에 피스 본 뒤 샤또 1등급, 칼레라 센트럴 코스트 피노누아, 롱반 피노누아. /나라셀라

영화 사이드웨이(Sideways)를 보면 주인공 마일즈는 와인 가운데서도 피노누아 품종을 거의 광적으로 좋아한다. 마일즈는 피노누아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재배하기가 힘든 품종이잖아요. 껍질은 얇지만 성장이 빠르고, 카버네와는 달리 아무 환경에서나 못 자라서 끊임없이 보살펴야 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만 자라고, 인내심 없는 재배가 불가능한 품종이죠. 시간과 공을 들여서 돌봐줘야만 포도알이 굵어지고, 그렇게 잘 열리면 그 맛과 오묘한 향이 태고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줘요.”

까다롭지만 제대로 만든 피노누

아를 일단 한 번 맛보면 안다. 왜들 피노누아에 빠지는지. 투명한 듯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잘 익은 과실향과 꽃향, 숙성에 따른 복합적인 아로마가 가득하다. 입에서는 실크처럼 부드러우면서 끝까지 이어지는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

‘레인 소노마 코스트 피노누아’는 한 해에 2만4000명만 만든다. ‘좋은 와인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키워내는 것’이라는 철학처럼 와인을 만드는데 있어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한다. 100% 손으로 포도를 따고, 그것도 예민한 피노누아를 위해 선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밤에 수확한

다. 레드 체리와 딸기같은 붉은 과실향과 함께 장미와 제비꽃의 향이 잔을 채운다.

‘부샤 빼레 에 피스 본 뒤 샤또 1등급’은 프랑스 부르그뉴의 본에 위치한 열 군데의 1등급 포도밭에서 기른 포도를 각각 양조한 후 블렌딩해 만든다. 단일 포도밭이 아니니 빈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세련된 붉은 과실의 품미가 잘 살아있다.

‘칼레라 센트럴 코스트 피노누아’는 캘리포니아의 로마네 콩티로도 불린다. 센트럴 코스트 내에 몬트레이와 산타바바라 등 여러 원산지별로 선택된 최상급의 포도밭의 포도로 만든다. 매혹적인 아로마와 매끈한 질감, 생기 넘치는 과일과 향신료 풍미를 보여준다.

‘롱반 피노누아’는 그 찾기 힘든다는 가성비 피노누아 와인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과 중부 해안가의 포도밭에서 조달한 포도를 섞어 만들며, 선선하면서도 햇살 가득한 기후가 주는 맑은 산도와 붉은 과실의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LG전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코로나 극복 지원

한국전 참전용사 100여명에 생활지원금·손소독제 등 전달

LG전자가 올해에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에 감사를 전했다.

LG전자는 23일 (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에서 100여명에 생활지원금과 손소독제 등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에스타파노스 참전용사협회 부회장, 양승환 LG전자 에티오피아지점장, 박용규 월드투게더 에티오피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이달부터 아디스아바바 참전용사 마을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마을 내 학교에 화장실, 식수시설, 컴퓨터실 등을 설치한다. 이는



양승환 LG전자 에티오피아지점장(왼쪽 첫 번째)이 협회에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지난해 10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시작한 희망마을 사업의 일환이다.

희망마을 사업은 LG전자와 한국헤비타트가 함께 참전용사 마을 내 주거, 위생, 교육 등을 개선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후손의 자립을 돕는 3년 프로젝트다.

앞서 LG전자는 올해 3월부터 참전용사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내 낡고 오래된 집을

품수리 기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약 3년 동안 국가자격증 취득,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해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전체 신입생 중 15%에 해당하는 인원은 참전용사 후손으로 배정하고 있다.

LG전자와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비정부기구(NGO)인 월드투게더와 함께 생활지원금, 장학금,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LG전자대의협력담당 윤대식 전무는 “에티오피아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라며 “특히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에도 LG전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를 세운 바 있다. 매년 100명의 입학생을 선발해 전자제

/김재용 기자 juk@

송해 선생, 유해발굴사업 홍보대사 위촉

‘전국 노래자랑’으로 유명한 방송인 송해(본명 송복희(사진) 선생이 24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의 유해발굴사업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송해 선생은 한국전쟁(6·25) 당시 고향 황해도 해주를 떠나 통신병으로 입대해 1953년 7월 27일 휴전 전문을 직접 타전하기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 국유단은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오피니언 리더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전자자유가족 ‘유전자(DNA)시료 채취’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향후 송해 선생은 향후 국유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유해발굴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모델, 각종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유가족 시료채취 등 사업홍보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n@

인사

◆한국투자증권 ◇부서장 신임 △투자상품관리부장 서형석

부음

▲조남진(전 강원일보 사장)씨 별세, 이문자씨 남편상, 조구(풍양 조씨 종친회 근무)·소연(진주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지연씨 부친상, 김동완(현대자동차 총천 고려엔지니어링 부장)씨 장인상 = 24일 오전 5시, 춘천 호반장례식장 1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033-252-0046, 010-7181-1289

▲조남홍(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씨 별세, 정영선씨 남편상, 조상연·조수연씨 부친상, 조성빈·강성정·조하은·강나영씨 조부상 = 2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장지 하늘나라공원. 02-3410-3151

메트로신문 교대역 배포도우미 모집 010-5241-6694